기획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 이젠 '학습자

길게 읽기 – 장애학생 학습권 살펴보기

황경선 기자 sunny96@khu.ac.kr
김도엽 기자 wogmd567@khu.ac.kr

헌법 제31조 1항의 '교육을 받을 권리' 조항은 국민 모두가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출 수 있도록 국가는 적절한 교육기회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한다. 이 조항의 적용은 장애인이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사회와 대학은 지난 1990년대부터 장애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비를 갖춰왔다. 1995년부터 대학입시전형에는 '장애인 특별전형'이 신설되었고, 1997년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따른 법률'이 제정된 이후에는 캠퍼스 내에 장애인 편의시설 및 설비와 교수학습지원시스템 등을 제공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이것이 장애학생들의 학습권을 충분히 보장해주지는 못했다. 2000년도 교육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1997년부터 2000년까지 특별전형을 실시한 전국 4년제 대학 30개교에 등록한 장애학생(974명) 중 177명(18.2%)이 학사경고를 받았고 52명(5.3%)이 중도에 학업을 포기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통계는 장애학생의 학습편의성 문제가 비단 개개인의 차원만이 아닌 구조적 문제임을 암시한다. 이에 정부는 2003년 이후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13조 2항'에 의거해 각 대학들의 장애학생 지원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평가하기 시작했다. 교수·학습·시설 등의 지표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이 평가 덕분에 각 대학은 장애학생 지원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됐고, 그 결과 이제는 장애학생의 학습권이 최소한의 보장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우리학교도 이러한 흐름 속에 장애학생의 학습권을 위한 다양한 지원 시스템을 점진적으로 구축해왔다. 그래서 2014년에는 교육부에서 진행하는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기도 했다. 우리학교의 장애학생들 역시 학교 측의 '지원 시스템'에 대해서는 상당한 만족감을 내비친다. 시각장애 3급인 서울캠퍼스의 A 학생은 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교내에서 충분히 지원을 받고 있어 별다른 불편함을 느낀 적은 없다"면서 "확대경이 있어야 글자가 보이는 상태인데 도서관에도 확대경이 비치돼있고,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는 요청하는 교재의 일부분을 음성파일로 변환해주기도 해서 공부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다"고 평가했다.

현재 장애학생지원센터는 중앙도서관, 법학도서관 등과 연계해 장애학생을 위한 기자재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장애학생 전용 열람실을 마련하고 지체장애학생을 위한 높낮이 조절 가능 책상을 설치해두어, 장애학생들이 수업시간 외에도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더불어 장애학생지원센터는 사전수강신청제도나 학습도우미제도를 비롯해 장애학생이 수강하는 강의의 교수자에게 사전 메일 보내기, 쉼터 제공, 취업 상담 등도 지원한다. 우리신문이 만나본 장애학생들은 공통적으로 '학습도우미제도'와 '사전수강신청제도'에 만족한다는 입장을 표했다. 지체장애 1급인 서울캠퍼스의 B 학생은 "학습도우미 덕분에 도서관에서 책을 편하게 빌리는 등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어 쾌적하고, 또 사전수강신청제도 덕분에 '초치기'에 대한 부담감 없이 원하는 강의를 잡을 수 있었다"고 말한다.

장애학생들, 학습도우미제도 등 학교지원에 대체로 '만족'

하지만 '평가'로 인해 개선되는 모든 영역이 그렇듯, 장애학생의 학습권이라는 부분 역시 '평가 결과 최우수 등급'이라는 사실이 곧 '모든 문제의 해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우리신문이 우리학교의 장애학생 중 현재 '재학' 중인 15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한 결과, 학생들이 호소하는 '불편함'은 크게 두 가지의 영역으로 구분되어 나타났다. '건물 시설의 미비점' 문제와 '교수·비장애학생 등과의 소통에서 오는 어려움'이 그것이다.

건물 시설의 미비점' 문제는 가장 많은 학생이 토로한 불만사항이었다. 건물에 장애학생을 위한 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은 데다, 이 같은 점을 세심하게 배려하지 못하는 시스템적 문제가 겹쳐 학생의 불편함을 야기한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특히 직접적인 거동이 불편한 지체장애학생들에게 큰 문제가 된다.

지체장애 1급인 서울캠퍼스의 C 학생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경험을 이야기 했다.

"듣고 싶었던 실습 교양수업이 네오르네상스관 지하에 위치한 강의실에 배정돼있었어요. 그 곳(네오르네상스관)에는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휠체어를 타고 있는 저는 아예 수강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학교 측에 이런 어려움을 호소하며 강의실 변경을 문의해보기도 했지만 결국 아무런 변화도 없었고, 그래서 수업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듣고 싶었는데 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아서 듣지 못하다니 참 아쉬웠죠."

하지만 '평가'로 인해 개선되는 모든 영역이 그렇듯, 장애학생의 학습권이라는 부분 역시 '평가 결과 최우수 등급'이라는 사실이 곧 '모든 문제의 해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장애학생을 위한 시설의 미비는 그들의 학습권을 크게 침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사실 이것은 C 학생의 경우처럼 단지 한 과목의 수강 여부에만 국한되지 않는 중요한 문제다. 가령 우리학교 장애인 특별전형을 한 번 살펴보자. 우리학교에서 장애인특별전형으로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는 학과는 서울캠퍼스의 5개 학과(행정학과, 사회학과, 경영학부, 회계세무학과, Hospitality 경영학부), 국제캠퍼스의 5개 학과(산업디자인학과, 시각정보디자인학과, 환경조경디자인학과, 의류디자인학과, 디지털콘텐츠학과) 뿐이다. 전체 학과 수에 비해 굉장히 한정적인 숫자다. 입학처 측은 특별 전형이 몇몇 단과대학에만 열려있는 이유에 대해 '장애인 지원 기반시설의 유무'를 언급한다. 특별전형에 포함되지 않는 단과대학 건물에는 장애인 지원 기반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장애학생들이 입학해도 제대로 관리받을 수 없기에 관리가 가능한 단과대학 위주로 한정적인 모집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결국, 한 해에 각 2명 씩 총 20명의 장애학생만이 특별전형을 통해 우리학교에 입학할 수 있다. 여기에서 볼 수 있듯, 시설의 미비는 비단 장애학생의 학습편의성 및 생활편의성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애초에 '학습 받을 수 기회'를 박탈하는 요소로 작용하기도 한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하겠다.

제한된 장애특별전형 학습받을 수 있는 권리 박탈요소로 작용하기도

물론 이 문제를 개선하는 데에는 막대한 비용이 들어간다. 하지만 우리학교는 SPACE21이라는 사업을 이미 진행하면서, 장기적으

2016학년도 전기 체육대학원 석 · 박사 신 · 편입학 모집

●모집전공

가. 신입학

구분	학 과	모집과정 석사	학 과	모집과정 박사
전공	스포츠의 · 과학	20명	스포츠의 · 과학	20명
	태권도 · 골프		태권도 · 골프	
	스포츠커뮤니케이션융합	15명	스포츠산업 · 경영	

나. 편입학

구분	학 과	모집정원 석사과정	학 과	모집정원 박사과정
전공	스포츠의 · 과학	70명	스포츠의 · 과학	1명
	태권도 · 골프		스포츠산업 · 경영	
			태권도 · 골프	

●전형일정

구분	일시	장소
원서 교부	2015.10.19(월) ~ 11.06(금)	본교 체육대학원 홈페이지 및 체육대학원 행정실(204호)
원서 접수	2015.10.26(월) ~ 11.06(금) 17:00까지	체육대학관 내 체육대학원 행정실(204호)
면접/ 구술전형일시	2015.11.21(토) 10:00이후	체육대학원 홈페이지 참조
합격자 발표	2015.12.07(월) ~ 예정	체육대학원 게시판 및 홈페이지

●장학제도

장학명	장학금액	지급기준
모범장학	5% – 전액	본 대학원 학사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자
조교장학	등록금의 일부 또는 전액	학사조교 및 연구조교로 소속부서의 발령 받은 자
동문장학	수업료 13%	본교 동문인 자
스포츠 커뮤니케이션 융합장학	30% – 70%	스포츠커뮤니케이션 융합 전공자
목련장학	5% – 전액	가계가 곤란하며 본 대학원 학사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자

경희대학교 체육대학원

동서의학대학원 신입생 모집

● 전형일정

구 분	일 시	장 소
전형 안내	2015.10.12.(월) ~ 11.13.(금)	동서의학대학원 홈페이지 http://gsm.khu.ac.kr
원서 접수	2015.10.19.(월) ~ 11.13.(금)	우편(방문)접수, 이메일접수
서류 제출	2015.10.19.(월) ~ 11.13.(금) (공휴일 및 토, 일요일은 제외)	동서의학대학원 행정실 (구 국제경영대학관 203호)
전형 일시	2015.11.21.(토) 10:00	국제캠퍼스(수원) 지정장소 (원서접수 후 홈페이지 게시)
합격자 발표	2015.11.26.(목) 16:00 예정	동서의학대학원 홈페이지 http://gsm.khu.ac.kr
예치금 등록	2015.11.30.(월) ~ 12.04.(금)	하나은행 전국지점(합격자 유의사항 참조)
합격자 등록	2016.02.01.(월) ~	확정 일자는 본 대학원 홈페이지에 공지 예정

※ 세부 일정은 변경 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동서의학대학원 홈페이지에 공지함

● 모집학과 및 과정

모집학과(전공)		학 위 명	모 집 과 정 석 사 신입	석 사 편입	박 사 신입	박 사 편입
노인학과	노화의과학전공	의과학 석 · 박사	O	X	O	X
	노년학전공	노년학 석 · 박사	O	X	O	X
동서의학과	한의학/의학전공	한의학/의학 석 · 박사	O	O	O	O
	대체보완의학전공	대체의학 석 · 박사	O	X	O	X
동서의과학과	한의과학전공	한의학 석 · 박사	O	O	O	O
의학영양학과	의학영양학전공	의학영양학 석 · 박사	O	O	O	O
	임상영양학전공					

※ 동서의학과 한의학/의학전공 지원자의 학문분야는 의 · 약학 및 생명과학분야 전공자에 한함.

경희대학교 동서의학대학원

2016 전기 국제대학원 장학생 모집

- **모집분야** : 국제통상협력학과 / 국제개발협력학과 / 국제경영학과
- **모집인원** : 석사과정 00명
- **지원자격** : 석사과정 – 국내 · 외 대학교 학사학위 취득자 및 취득 예정자
- **전형방법**
  국내거주 지원자 : 서류(40%), 영어인터뷰(40%), 영어작문시험(20%)
  해외거주 지원자 : 서류(40%), 영어인터뷰(60%)
  ※ 해외거주 지원자 인터뷰는 전화로 진행하며, 일자는 별도 통지
- **전형일정**
  서류접수 : 2015년 10월 12일(월) ~ 11월 4일(수)
  국내 거주자 인터뷰 및 영어작문시험 : 2015년 11월 7일(토) 오후 12시 30분
  해외 거주자 인터뷰 : 개별안내
- **입시설명회** : 2015년 10월 26일(월) 19시 30분, 국제학관 103호
- **합격자발표** : 2015년 11월 중
- **제출서류**
  · 입학원서 (국제대학원 홈페이지 지원서 양식 다운로드, 자기소개서 양식 포함)
  · 전학년 성적증명서 1부 (평균, 평점 및 백분율 성적 기재)
  · 추천서 2인 각 1부씩 (국문가능, 자유양식)
  · 졸업(예정)증명서 1부 (학위등록번호 기재)
  · 반명함판 사진 1매 (3cm*4cm)
  · 전형료 : 70,000원 (E-mail 및 우편접수 시 온라인 입금)
  ※ 입금계좌: 하나은행 906-910002-76604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 해당자에 한함
  · 공인영어성적 소지자 가산점 부여, 성적표 1부
  · 국문/영문 번역 공증서(졸업증명서, 전학년 성적증명서)
  *영어권 이외의 외국에서 학위를 받은 경우
- **원서접수**
  – E-mail 접수 : gsp@khu.ac.kr
  – 우편접수 : [17104]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
  경희대학교 국제대학원 행정실 [봉투에 '입학원서 재중' 게재 要]

경희대학교 국제대학원